

| 이슈페이퍼 2020-01 |

# 2019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권미경

1. 배경 및 문제점
  2. 육아문화 진단(Ⅰ) : 육아 관련 키워드 분석
  3. 육아문화 진단(Ⅱ) : 설문 조사
  4. 결론 및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2019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권미경 연구위원

## ◆◆ 요약 ◆◆

-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빅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육아 관련 문서를 감성어 점수로 구분하여 긍정/부정문서의 연도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긍정문서의 개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부정문서의 개수는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약 7만 6천 건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육아문화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습, 물리적 환경이나 언어보다도 ‘정책과 제도’가 가장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결과를 얻음.
-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꾸준히 지속해야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로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추진, 지역사회 내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계와 이용 기회 확대,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 요구됨.

## 1

### 배경 및 문제점

-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를 중심으로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 내에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행복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양육되어지는 주체인 자녀의 ‘아동권’과 더불어 양육하는

\* 본 고는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 및 관련어 빅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성함.

주체인 부모의 ‘육아권’을 존중하는 사회가치를 실현할 노력이 필요함.

- 양육이 부모만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닌, 국가가 지켜줘야 할 ‘권리’라는 ‘육아권’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저출산 극복, 아동의 권리 존중, 육아하는 부모의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가치’와 ‘가치의 실현’을 확산,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사회 전반의 육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육아를 행복하게 느끼는 문화를 조성하여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됨.
- 본고는 한국의 육아와 관련한 문화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저출산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 본고는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와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 ◆ 이를 위해 2019년 육아 관련 키워드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과 20~40대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 육아문화 진단(Ⅰ) : 육아 관련 키워드 분석<sup>1)</sup>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는 육아와 관련된 키워드에 나타난 긍정성과 부정성을 빅 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보고자 ‘육아’에

1) 본 절은 협동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강이, 이재림 교수 외)이 수탁하여 진행한 연구의 내용임.

대한 주제어사전을 개발한 후 관련 주제어를 수집하여 분류함.

- ◆ 구체적으로, 2016~2018년 3년 동안 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에 등장한 육아 관련 빅 데이터<sup>2)</sup>를 수집, 분석하여 ‘육아’와 관련한 주제어의 출현빈도, 양상 등을 살피고 그 안에 담긴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구체화함.

### 가. 육아 관련 주제어 출현빈도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뉴스, 카페,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등 ‘육아’ 관련 소셜 미디어 문서 내 자주 등장한 상위 50개의 핵심단어 중 ‘육아’를 제외하고 워드 클라우드 우드로 시각화하면 [그림 1]과 같음.
- ◆ ‘아이’, ‘여자’, ‘엄마’, ‘아기’, ‘남자’, ‘남편’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확인되며, 그 외에 ‘양육비’, ‘육아휴직’, ‘출산’, ‘결혼’, ‘독박육아’ 등의 주제어 또한 높은 빈도인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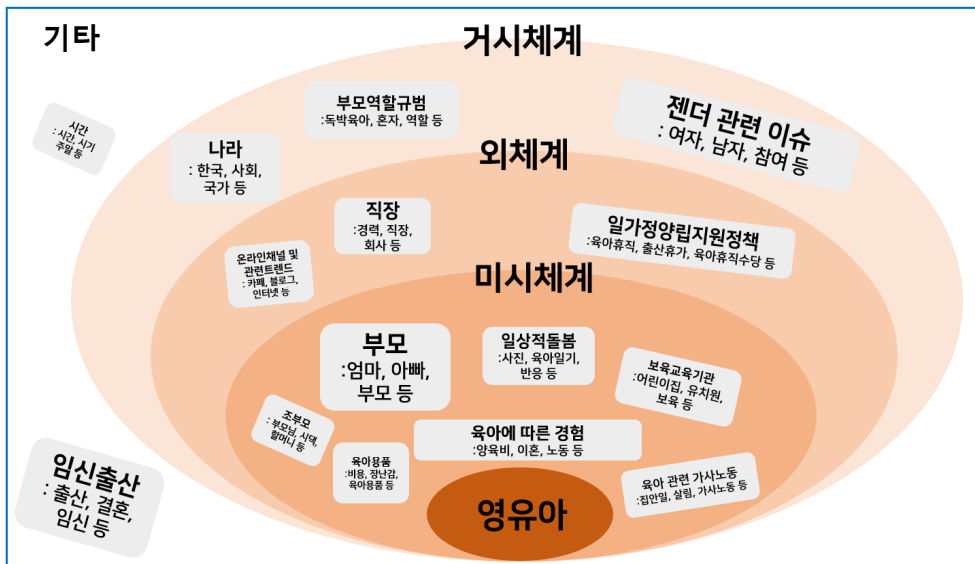
[그림 1] 육아 관련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연구(Ⅰ). p. 77. [그림 Ⅲ-3-1]임.

2) 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가 선택한 채널들에서 문서들을 수집하는 크롤러를 통해 비정형 빅 데이터의 분류 및 정제 기술로 축적한 자료를 활용함.

### 나.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주요 소분류 및 주제어

-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주제어 중 출현빈도가 1,000회 이상인 단어를 살펴보면, 미시체계에는 부모, 일상적 돌봄, 육아에 따른 경험, 교육보육기관, 육아관련 가사노동, 육아용품, 조부모 등에 대한 주제어로 수렴. '부모' 범주에서는 '엄마', '남편', '아빠', '부모'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고 '미혼모', '맞벌이', '워킹맘', '한부모' 등 부모의 상황 특성을 반영하기도 함.
- 외체계에는 직장,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온라인 채널 및 관련 콘텐츠 등에 대한 주제어로 수렴되며, 외체계 중 부모의 일 환경과 관련된 주제어가 포함된 '직장'에서는 '경력'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함.
- 거시체계에는 젠더 관련 이슈, 나라, 부모역할 등에 대한 주제어로 수렴되며, 거시체계의 규범 중 '부모 역할'에서는 '독박육아'와 '혼자', '젠더 관련 이슈'에서는 '여자', '남자' 그 외의 '참여', '책임', '분담', '페미니즘', '한남', '성평등'과 같은 주제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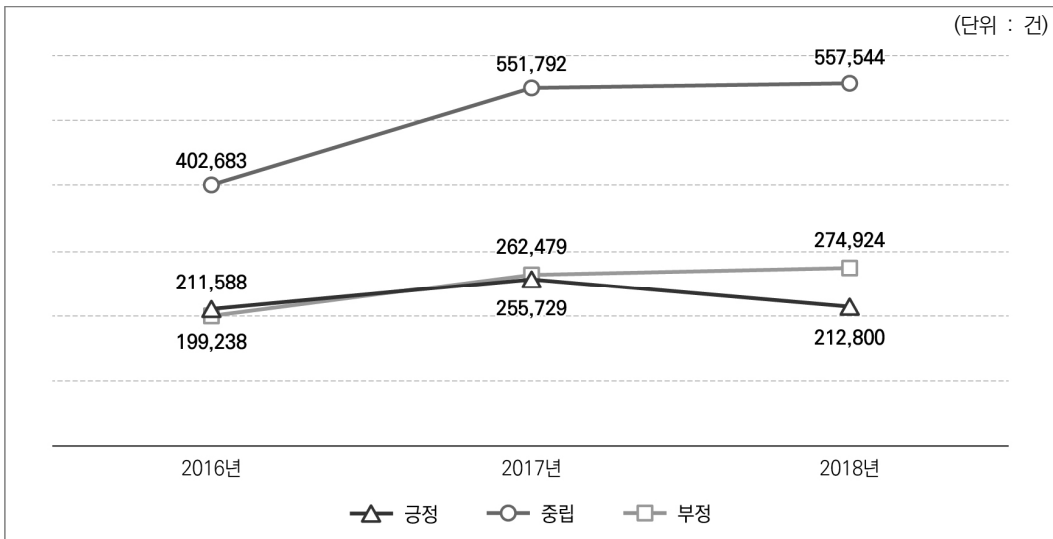


[그림 2]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주요 소분류 및 주제어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87. [그림 III-3-3]임.

### 다. 연도별 감성분석

- 육아 관련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육아 관련 문서를 감성어 점수로 구분한 긍정/부정 문서의 연도별 출현 빈도를 살펴봄.
- 2016년~2018년 최근 3개년의 관련 빅 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긍정문서, 부정문서의 문서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긍정문서의 개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부정문서의 개수는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약 7만 6천 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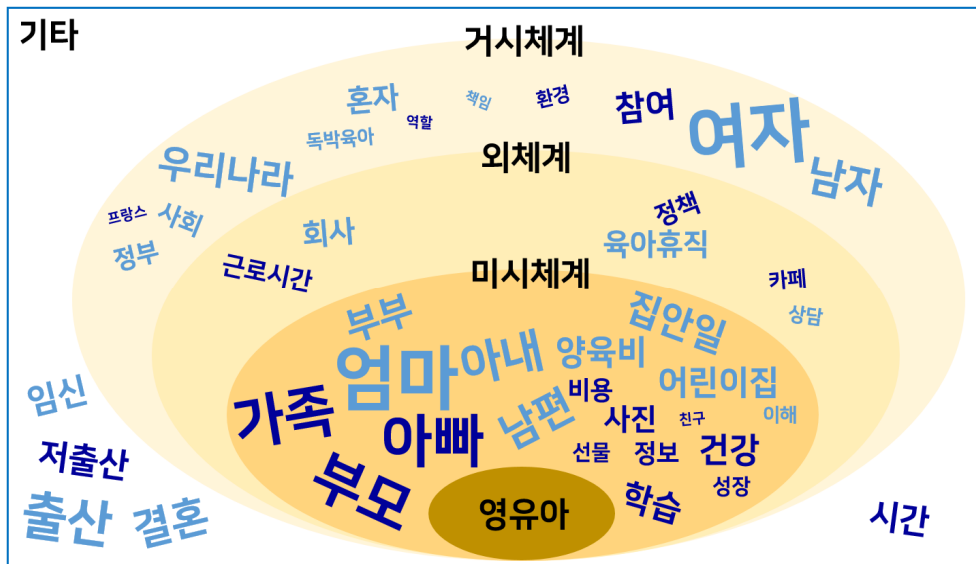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감성분석(전체)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94. [그림 Ⅲ-3-5]임.

### 라.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주제어 출현빈도

- 육아 관련 문서에 등장한 감성 단어 중 긍정어 및 부정어 출현 횟수를 바탕으로 감성어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긍정문서와 부정문서로 구분함.
- 상위빈출단어를 추출한 결과, 긍정문서와 부정문서에서 공통적으로 ‘육아’, ‘아이’, ‘여자’, ‘엄마’ 주제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이어 긍정문서에서는 ‘아기’, ‘가족’, ‘부모’, ‘아빠’, ‘자녀’와 같은 주제어가 부정문서에 비해 더 높은 빈도로 등장함.

- ◆ 흥미로운 것은 육아 관련 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맥락이 더 우세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남자’의 경우 긍정문서에서보다 부정문서에서 빈도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난 점으로, 이는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입장에서 ‘남편’을 언급할 때와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를 언급할 때 관련된 감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긍정문서 내 상위 출현빈도 주제어를 생태체계모형으로 표현한 [그림 4]를 보면, 미시체계에서 ‘가족’, ‘부모’, ‘아빠’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주요 긍정 핵심 주제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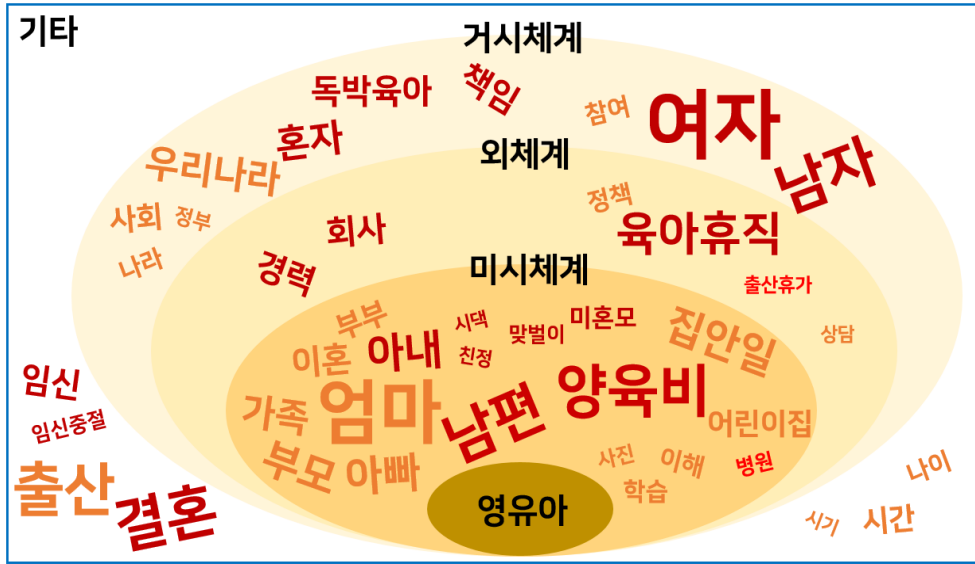


[그림 4]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긍정문서 내 핵심 주제어

주: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주제어는 긍정문서에서의 출현빈도가 부정문서에 비해 10,000회 이상 더 많거나, 부정문서에서는 상위 50개 주제어에 해당하지 않고 긍정문서에서만 상위 50개 주제어로 등장한 주제어임.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103.  
 [그림 Ⅲ-3-14]임.

- 부정문서 내 핵심주제어를 생태체계모형으로 표현한 [그림 5]를 보면, 미시체계에서 ‘남편’, ‘아내’, ‘양육비’가 높은 빈도로 핵심 주제어이고, 외체계에서는 ‘육아휴직’이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어로 나타났으며, 긍정문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경력’, ‘육아휴직’ 등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임. 이는 자녀양육이 경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육아휴직 이용의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5]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부정문서 내 핵심 주제어

주: 가장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주제어는 부정문서에서의 출현빈도가 긍정문서에 비해 10,000회 이상 더 많거나, 긍정문서에서는 상위 50개 주제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문서에서만 상위 50개 주제어로 등장한 주제어임.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103. [그림 Ⅲ-3-15]임.

### 3 육아문화 진단(II) : 설문 조사

- 육아관련 문화 현상들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요구에 대해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령대별(20대, 30대, 40대), 성별,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경향을 파악함.
- ◆ 전반적인 육아 관련 문화, 가정 내 육아문화,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긍정적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인식, 개선의견을 수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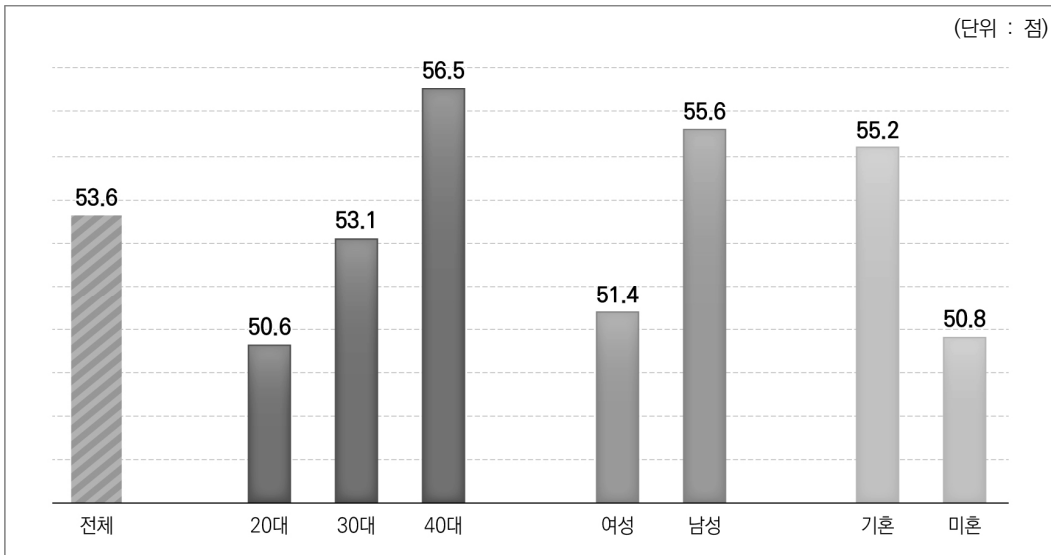
## 가. 육아 관련 문화에 대한 인식

### ■ 육아문화에의 영향요인

- ◆ 육아와 관련된 문화 중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1%가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시간제보육 등과 같은 ‘정책과 제도’라고 답함.
- ◆ 육아문화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습보다도, 물리적 환경이나 언어보다도 ‘정책과 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선택함.

### ■ 육아문화에의 긍정성 진단

-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성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평균 53.6점으로 나타남. 20대에는 50.6점, 30대에는 53.1점, 40대에는 56.5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평가가 높아졌고, 여성은 51.4점, 남성은 55.6점으로 남성이 긍정적 평가 경향을 보였고, 미혼 집단(50.8점) 보다는 기혼 집단(55.2점)에서 높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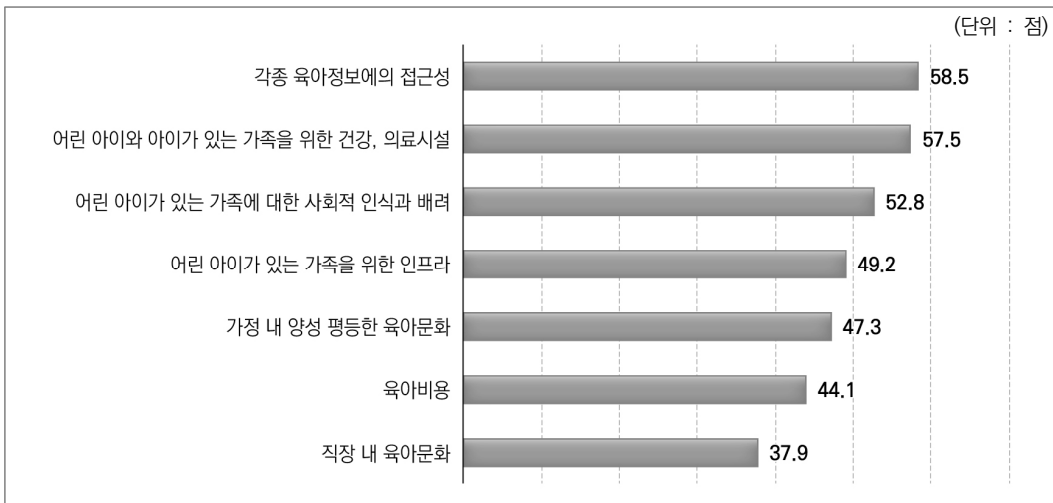


[그림 6] 우리 사회 긍정적 육아문화 점수의 집단별 차이

자료: 권미경·문우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p. 154. [그림 V-1-1]임.

■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

- ◆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100점 기준 점수를 부여함.
- ◆ 각종 육아정보에의 접근성(58.5점), 병원이나 보건소 등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건강 및 의료시설(57.5점),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52.8점) 등에 대해 50점 이상임.



[그림 7]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155. [그림 V-1-2]임.

■ 자녀 양육환경으로의 사회 평가 및 이유

- ◆ 현재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점 기준 평균은 2.2점으로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2점)'에 수렴함. 40대에서 2.4점으로 20대 2.1점이나 30대의 2.2.점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자녀연령이 중학생 집단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남.
- ◆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인 이유는 '비교적 안전한 사회',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시의 국가 지원', '이용이 편리한 병원 및 의료시설' 등을 꼽음.
- ◆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인 이유는 '과도한 양육비용', '직장의 육아에 대한 배려 부족과 제도 이용 어려움'으로 나타남.

### ■ 육아문화 양상의 긍정성 진단

- ◆ 긍정적 측면으로는 ‘최근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93.6%,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다’ 80.6%,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카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78.4%, ‘자녀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 78%,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77.5% 등임.
- ◆ 부정적 측면은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91.7%, ‘우리 사회 육아관련 소비는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 91.4% 으로 대표됨.

### ■ 온라인 소통 관련

- ◆ 온라인 SNS 소통 통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카카오톡이 1위, 20대와 30대, 여성, 미혼 집단에서 인스타그램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음.
- ◆ 육아와 관련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카카오톡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자주 사용하는 검색채널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네이버이며, 자주 시청하는 영상미디어는 40대에서는 공중파, 30대에서는 케이블 방송, 20대에서는 유튜브(YouTube)를 들어 뚜렷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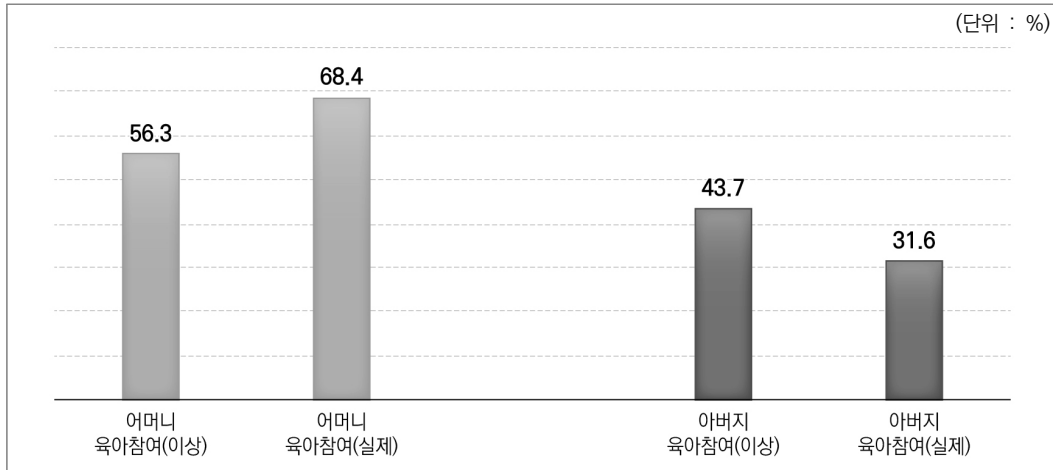
## 나.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 ■ 부부의 평등한 육아 참여

- ◆ 가정에서 부부의 평등한 육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균점수는 65.2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 여성(61.5점)은 남성(69.1점)에 비하여 평등한 육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은 점수를 보였고,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은 점수를 보임.

### ■ 부부의 육아 참여 정도

- ◆ 부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육아참여 정도와 실제 참여정도를 조사한 결과 실제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저조함을 확인함.



[그림 8] 부부의 육아 참여 정도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195. <표 V-2-2>, p. 196. <표 V-2-3>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 육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

- ◆ ‘아이를 키우며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 있다’가 각각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가 3.3점으로 조사됨(4점 만점).
- ◆ 한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있다’는 유일하게 3점 미만(2.6점)으로 낮게 나타나, 육아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 남성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정하여, 육아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이는 양육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체감하는 양육에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 결과로 보임.

#### ■ 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

- ◆ 육아에 대한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감에 대해 각각 3.2점과 3.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2.8점,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2.4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4점 만점).
- ◆ 육아에 대한 육체적 어려움은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3점), 이는 30대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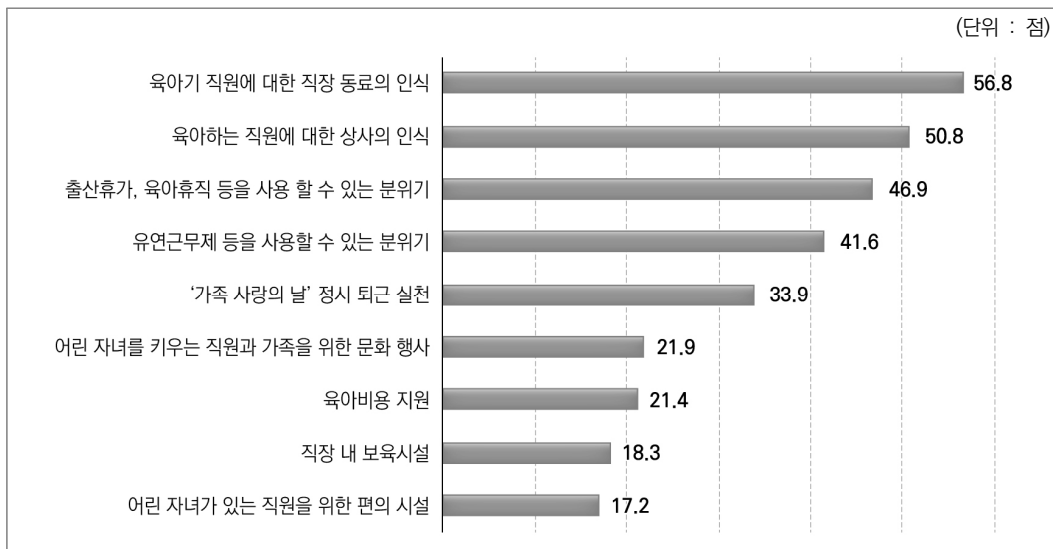
■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를 위한 우선사항

- ◆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44.6%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라고 답함.
- ◆ 다음으로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 실현'(19.4%), '남녀 부모역할 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8.1%), '부모의 양육관 및 교육관의 다양성 인정'(13.0%), '육아에 대한 과소비문화 지양'(4.7%) 등임.

다.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평가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평가는 평균 54.6점으로 우리나라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가 대체로 육아 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함.
- ◆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해 '육아기 직원에 대한 직장 동료의 인식'과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상사의 배려'가 가장 높음.



[그림 9]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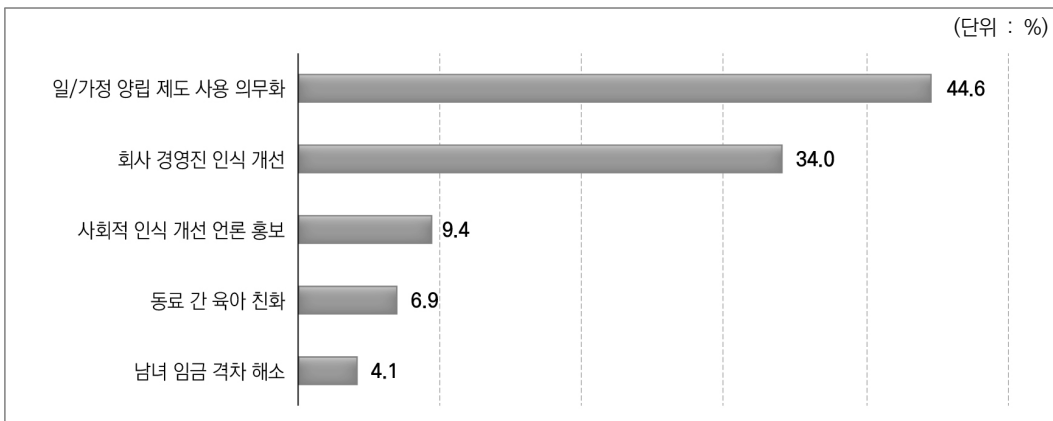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p. 205-206. <표 V-3-2>를 토대로 구성함.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

- ◆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 만 있다면 써야한다고 생각한다’가 69.6%로 대다수를 차지함.
- ◆ 반면, ‘육아휴직은 전체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써야한다고 생각한다’는 25.9%이며,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생각한다’는 4.2%로 조사됨.
- ◆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의 경우에 대도시 지역에서, 미혼인 경우에 맞벌이 가정에서 유의한 차이로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직장 내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를 위한 우선 노력사항

- ◆ 직장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 의무화’가 44.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회사 경영진의 인식 개선’(34.0%)으로, 이 두 가지가 78.6%를 차지함. 그 외에 ‘사회적 인식 개선 언론 홍보’(9.4%), ‘동료 간의 육아 친화적 분위기 조성’(6.9%), ‘남녀 임금 격차 해소’(4.1%)로 나타남.



[그림 10]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를 위한 우선 노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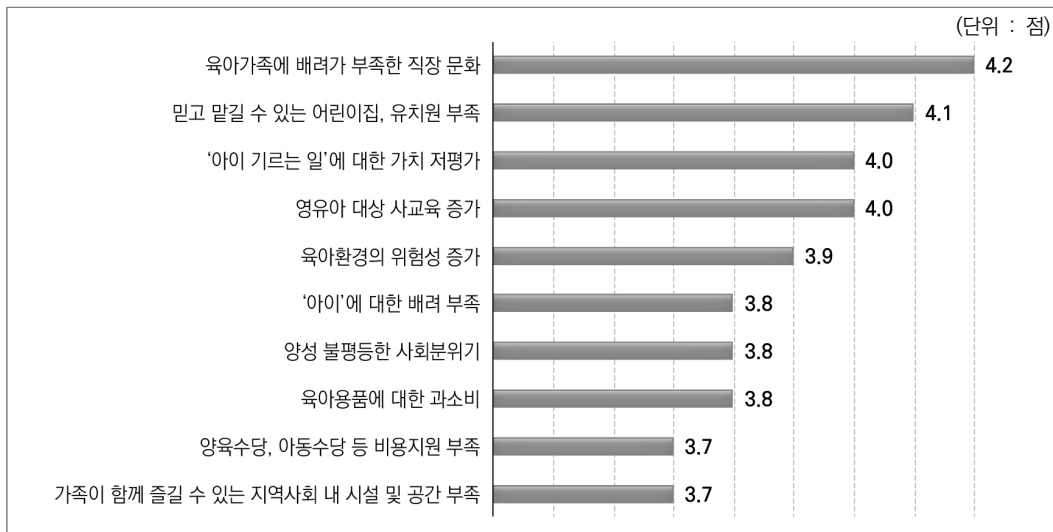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219. <표 V-3-12>를 토대로 구성함.

- ◆ 직장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여성 48%, 남성 41.4%),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 의무화’를 유의하게 높게 응답함.

## 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 ■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

- ◆ 응답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요소 중 ‘아이를 키우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에 대한 동의가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부족’이 4.1점, ‘아이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저평가 4점, 영유아 대상 사교육 증가 4점, 육아환경의 위험성 증가(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3.9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5점 만점).



[그림 11]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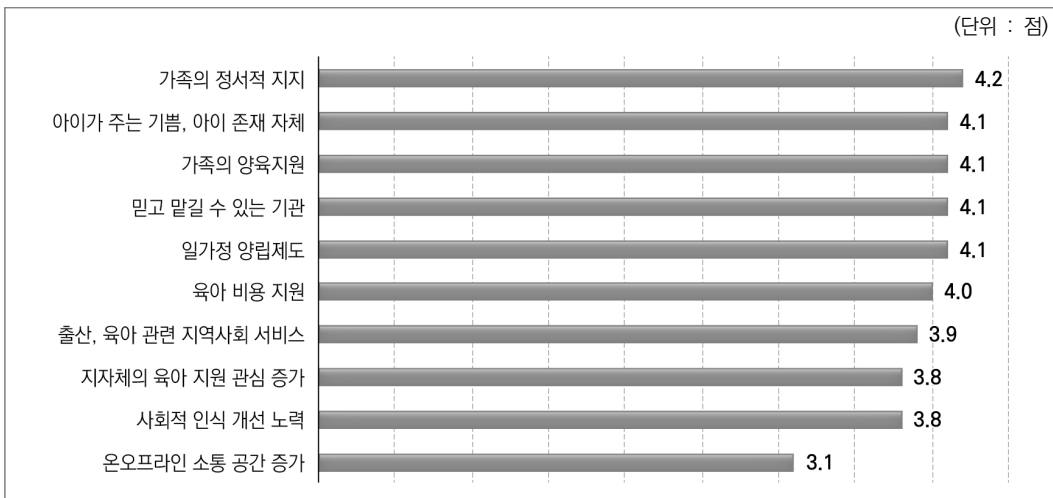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p. 223-224.  
 (표 V-4-1)를 토대로 구성함.

- ◆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30대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혼 보다는 기혼집단에서 육아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체감이 높은 상황임.



■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소

- ◆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요소 중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한 동의가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 존재 자체’에 대한 동의가 4.1점, ‘가족의 양육지원’ 4.1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4.1점, ‘일가정 양립제도’ 4.1점, ‘육아비용의 지원’ 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5점 만점).
- ◆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는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해서는 20대에서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4.2점)이 남성(4점)보다, 맞벌이 가정(4.1점)에서 아닌 경우(3.9점)보다 이를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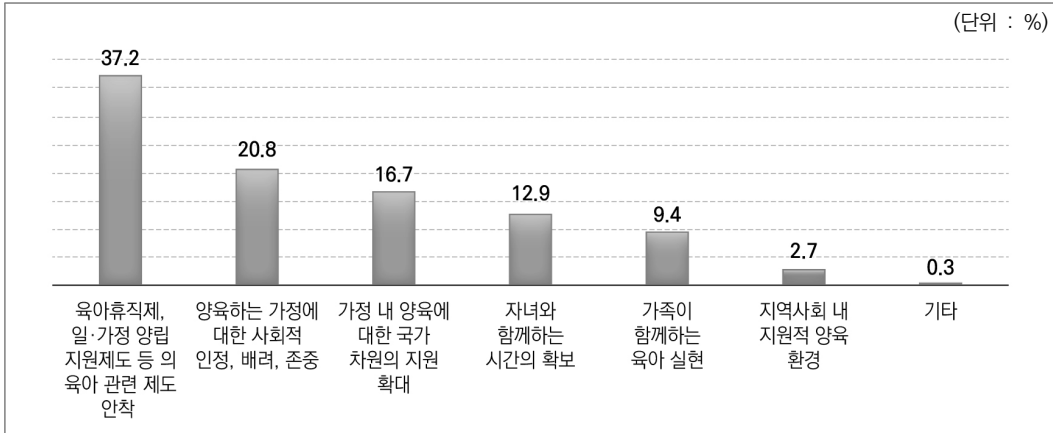
[그림 12]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소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p. 227-228. <표 V-4-2>를 토대로 구성함.

■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

- ◆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지닌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육아휴직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의 육아 관련 제도 안착이 37.2%,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이 20.8%,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1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육아 관련 제도 안착이 61%로 가장 많았고,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은 38.7%,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35.9%,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확보 31.2% 등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3]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p. 230-231. <표 V-4-3>을 토대로 구성함.

#### ■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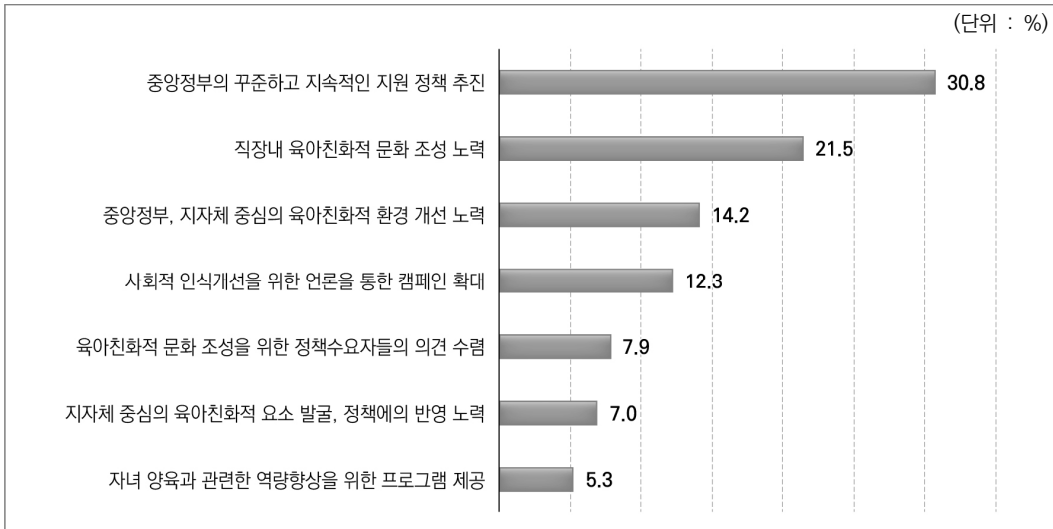
- ◆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지닌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할 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한 결과, 응답자의 90% 열 명 중 아홉 명은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응답함.
- ◆ 이에 대해서는 집단 차이는 보이지 않아, 연령이나 성별,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됨.
- ◆ 문화의 변화가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는 결과 자체가 그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임.

#### ■ 변화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 ◆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임.

- ◆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30.8%가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은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21.5%,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 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14.2%,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 12.3%,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7.9%, 지자체 중심의 육아 친화적 요소 발굴, 정책에의 반영 노력 7%,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5.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라 모든 집단에서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을 40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 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 맞벌이 가정은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을,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 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14]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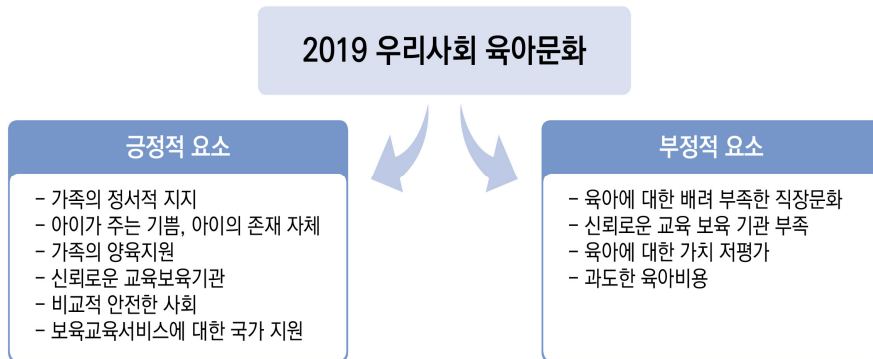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p. 234-235. <표 V-4-5>를 토대로 구성함.

4

## 결론 및 정책 제언

### 가.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 육아관련 키워드의 빅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 육아문화 안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함.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들은 가족의 정서적 지지, 아이가 주는 기쁨과 아이의 존재 자체, 가족의 양육지원, 신뢰로운 교육보육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비교적 안전한 사회,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 등으로 구체화됨.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부정적 요소들은 육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문화,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보육기관의 부족,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 과도한 육아비용 등으로 요약됨.



[그림 15]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자료: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p. 248. [그림 VI-1-1]임.

### 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 육아하는 가정을 응원하고 환대하는 육아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부정적 요소들을 줄이고 긍정적 요소들을 넓혀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에 준한 꾸준한 추진이 요구됨.

-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육증장기 계획 등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집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해야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로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추진해야 함.
- 긍정적 육아문화 형성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필요함.
  - ◆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와 협업 뿐 아니라 기업 등의 사회적 파트너와 협업 추진 또한 필요함.
  -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단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 육아 친화적 지자체로 선정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 버스와 지하철에 임산부와 노인을 위한 지정석이 있지만 어린 자녀를 동반한 배려는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에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치와 스티커 부착을 고려함.
- 지역사회 내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계와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육아 문화가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게 알맞게 조성되었음을 일상 안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함.
  - ◆ 지자체 중심으로 육아하는 가정 참여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는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지원함.
  - ◆ 육아하는 부모들이 지역 및 동네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육아모임이 있고 활성화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함.
  - ◆ 육아정(育兒亭) 설치,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운영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제작 참여를 통해 도모함.
  - ◆ 공중파 이외에 케이블 방송, 유튜브, SNS, 검색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육아 존중문화 가치의 확산을 도모함.

## | 참고 문헌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